

◇2mm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단술

김동관, 박승일, 김현조, 손광현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배경 및 목적 :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제술은 다한증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교감신경절단술시 교감신경절제술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2mm 흉강경의 개발로 인해 더 간편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 미용적인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한증 환자에서 2mm흉강경을 이용하여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고 술후 결과를 고찰하였다.

방법 : 1997년 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직경 2mm 흉강경을 이용하여 양측 T2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 받은 다한증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21명, 여자 14명이었고, 나이는 14세에서 43세로 평균 24.2세였다. 수족부다한증이 19례[68.6%]로 가장 많았고, 수부다한증 7례[20%], 안면부다한증 3례[8.6%], 기타 5례였다. 11례[31.4%]에서 가족 중 다한증이 있었다. 통계적 비교분석은 SPSS통계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s로 검증하였다.

결과 : 수술후 전례에서 수부다한 또는 안면부다한이 소실되었다. 수술직후 2례에서 기흉이 발생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나머지 환자는 모두 수술당일 퇴원이 가능하였다. 수술후 장기 추적기간은 1개월에서 7개월로 평균 2.8 ± 0.2 개월이었다. 장기추적결과 전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상성다한증이 발현되었다. 보상성다한증의 발생부위는 등이 26례[74.3%]로 가장 많았고 가슴, 배, 허벅지 순이었다. 보상성다한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11례[31.4%]였다. 수술의 만족도는 30례[85.8%]에서 만족하였으나 5례는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만족도는 보상성다한의 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p < 0.05$] 보상성다한의 정도와 나이, 성별, 가족력, 다한부위와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22례[62.9%]에서 족부다한의 감소가 발생되었으며 수술전 족부다한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p < 0.05$] 전례에서 수술상처의 미용적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다.

결론 : 다한증환자에서 2mm 흉강경 기구로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술결과의 불만족은 심한 보상성다한에서 기인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저자: 김동관(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발표자: 김동관(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